



한울림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성령강림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박미경(태국)

다같이

장귀호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양명철

다같이

설교자

5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내 주의 보혈은(찬 25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히브리서 10:1-18

불같은 성령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것”

온 세상 위하여(찬 50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신약교회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강림주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3. QT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박순정)
4.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한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핫라인 전화번호: Tel. 646-450-8603
5.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표를 작성했으니, 자신이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예배에 못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6.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 양명철 -

꽃 내음이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너무나도 좋아서 집 앞에만 나가도 길가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엔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를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길가에 피어 있는 수많은 꽃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꽃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영영 울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달려가 물었더니, 형이 자신을 ‘그린 남자’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린 남자는 얼마 전 아이들이 본 TV에 등장한 만화영화의 주인공들 중 한 명입니다. 두 아이가 상황극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형이 자신을 그린 남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는 그게 너무나도 속이 상해 서럽게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도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고 혼자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고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기꺼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길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